

[첨부1] 상장사 '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' 도입 설문조사 결과

< 설문조사 개요 >

- 조사대상 : 상장사 주총·IR 담당자 164명
- 조사기간 : 2016년 3월 7일(월)~4월 4일(월)
- 조사기관 : 전국경제인연합회
- 조사방법 :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조사 및 FAX 활용 조사 병행

문1] 귀하는 금융위원회가 금년 상반기까지 도입하려고 하는 '스튜어드십 코드'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?

- ① 잘 알고 있다(7.9%) ② 용어만 들어본 적이 있다(50.0%) ③ 모른다(40.9%) * 무응답(1.2%)

문2] '스튜어드십 코드' 도입 시 기업의 이어나 경영진은 주주총회 안건 공지 후 주주총회 전까지 주총 안건에 대해 주식을 보유한 기관투자자와의 협의를 해야 합니다. 귀하는 귀사의 이어나 경영진이 기관투자자와 이 같은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?

- ① 우리 회사 주식을 보유한 기관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주총안건 협의는 물리적으로 불가할 것 같다(17.7%)
② 이어나 경영진이 소수이고 일정이 바빠 주총안건 협의는 불가능할 것 같다(30.5%)
③ 모든 기관투자자와 협의는 불가능하고 일부 주요 기관투자자와만 협의가 될 것 같다(34.1%)
④ 기타(3.1%)
* 무응답(14.6%)

문3] '스튜어드십 코드' 가입 대상은 모든 한국 상장사 주식 보유자이며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도 포함됩니다. 가입한 기관투자자나 연기금은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의결권 행사 원칙과 지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. 귀하는 '스튜어드십 코드'가 도입되면 귀사의 주총안건에 대해 정부의 영향력이 커 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?

- ① 그렇다(56.1%) ② 아니다(13.4%) ③ 모르겠다(15.9%) * 무응답(14.6%)

문4] '스튜어드십 코드' 도입 이후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목적 또는 방향이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?

- ① 공시의무 때문에 정책당국, 의결권 자문사의 의견 등을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 같다(43.9%)
② 높은 배당을 요구하는 등 단기차익을 높이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할 것 같다(32.9%)
③ 투자한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할 것 같다(4.9%)
④ 해당 기관투자자의 고객 의견을 취합·반영해 의결권을 행사할 것 같다(0.6%)
⑤ 기타(2.4%)
* 무응답(15.3%)

문4] 정부는 '스튜어드십 코드'가 도입되면 상장사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'스튜어드십 코드'가 도입되면 귀사의 주가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?

- ① 그렇다(1.8%) ② 아니다(44.5%) ③ 모르겠다(39.1%) * 무응답(14.6%)

문5] '스튜어드십 코드' 도입 시 기업은 당사 주식을 보유한 기관투자자 대응 등을 위해 담당 조직을 두어야 합니다. 새로운 조직 구성에 몇 명 정도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(평균 2.3명)

문6] 새로운 조직 구성에 얼마 정도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(평균 14,929만원)